

정남진 우드랜드, 해외 인지도 높인다



장흥군은 지난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웰니스 관광 25선 운영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선 5월, 장흥군 대표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이날 발족식에 참석했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기관 및 업체별 웰니스 관광을 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앞으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해외 인지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개발, 외국인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상품화의 단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자연·숲 치유 부문에 선정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장흥군에서도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무장애 등산로, 말레길, 천연섬유재질의 종이 옷을 입고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비비에코토피아, 편백소금집 등이 우드랜드의 핵심 치유 시설이다.

유아·청소년, 직장인, 임신부 일반인, 아토피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과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에서 즐기는 숲속힐링음식도 운영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관과 목공예협장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편백숲 우드랜드는 탐진강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주무대로 활용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군, 웰니스 관광 25선 운영협 발족식 참여 자연·숲 치유 부문...홍보·마케팅 등 상품화



진도군 의신면·진도경찰서 보안협력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

진도군 의신면과 진도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가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의 집수리를 실시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복지사각지대 세대를 방문, 구슬땀을 흘리며 집수리 등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20여명의 봉사단원은 소외계층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방충망과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등을 실시했다.

또 안방의 도배와 장판 교체, 차양수리, 기타 환경정비를 통해

사랑이 가득 담긴 보금자리가 새롭게 탄생했다.

특히 장영길 위원장(진도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은 쾌적한 집수리를 위한 이불, 담요 등 생활용품도 의신면사무소는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세탁기를 선물했다.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세대를 발굴, 지역내의 봉사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벼 돌발병해충 방제 '총력'

1억9100만원 투입...친환경약제 구입비·장비 임차료 지원

여수시가 벼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벼 친환경농업단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1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 친환경농업단지 985개 농가에 친환경 약제 구입비와 방제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지역 친환경단지 600ha에 먹노린재와 발강나방 등 벼 돌발병해충 방제 작업이 펼쳐졌다.

방제작업에는 무인헬기와 광역살포기가 투입돼 효율적으로 친환경

약제를 살포했다.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는 농작물 위 3~4m에서 약제를 뿌릴 수 있고 작물 밑 부분까지 약제의 침투성이 높아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벼 돌발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한국어 교실 열기 '후끈'

외국인 근로자 16명 대상 개강식 및 수업 진행

장흥군은 지난 16일 다문화교류센터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외국인 주민 535명 중 결혼이민자는 286명으로 대부분 지원이 결혼이민자에 편중됨에 따라 그 외의 외국인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개 업체 1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문화교류센터 2층 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총 12회기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수업내용은 생활언어와 기초적인 한국어 말하기, 쓰기, 문법, 문화체험, 예절교실, 법률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날은 개강식 및 수업으로 이루어졌고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여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강식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주변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한국어 수업이 즐겁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어 교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무척 다행"이라며, "앞으로 보다 알차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여름철 영농교육 큰 호응

무안군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9개 읍면 99개 마을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및 연구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진달반을 편성해 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이상 기상상황에 따른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벼 생육 관리, 여름 발작 물인 콩?궤참깨 등의 생육기 비배관리, 농약안전사용 등 농작물 후

기 관리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영농기술교육과 함께 도민안전 100일 대책, 농기계임대사업 안내와 군의 주요 농정 안내,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과 건강관리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매해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여타 영농교육과 달리 주민식 교육을 탈피하고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의 경험과 애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도출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평가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2연속 우수기관

완도군이 정부에서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집행액, 민간실집행액, 예산규모가중치를 감안해 그룹별(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항목별 정량평가로 실시했다.

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2,588억 원 중 62.8%에 해당하는 1,606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했다.

그 결과 1/4분기 행정자치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4천만 원, 전남도내 2위로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종합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5억 9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전남도 평가결과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부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1/4분기부터 경기 과급효과가 큰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